

종립 동국대에 동문교수의 따뜻한 자비행이 전해져 새 학기를 맞은 학내에 훈훈한 화제를 던져 주고 있다. 자비실천의 주인공은 지난 2월말에 타계한 고 권오철교수(경제학과).

지난 12일 고 권교수의 미망인 강숙자보살(51)은 평소 고인의 간절한 뜻이 담긴 1억원의 장학금을 동국대에



故 권오철교수 기념 장학기금 미망인 강숙자보살 東大에 1억전달

전달했다. 권교수는 동국대 법학과를 68년에 졸업했으며 교수로 재직중에는 <경제학 원론> <살아가는 경제 이야기> <포켓속의 작은 경제학>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 서적 20여권을 출간한 정도로 전공에 대한 강한 집념도 보여 후학들의 존경을 받았다. <근>

승려교육 강화안 마련 신도조직활성·공·사유사찰 개념정립도

태고종이 중단중흥의 기치를 내걸고 본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태고종 중단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금담스님)는 지난 11일 총무원 설립전에서 제2차 합동회의를 가졌다. 특위원 6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분과위원회별로 추진해 왔던 중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 오는 5월에 개최될 임시중앙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전종무원 신도회 조직 태고종 대전종무원회는 지난 달 25일 대전불교연수원에서 제8회 지방총회를 개최했다.

불교회관 기공식 천태종 삼산사

천태종 삼척 삼산사(주지 오안산)는 지난 4일 전운덕 총무원장을 비롯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교회관 기공식을 거행했다. 삼산사 불교회관은 지상3층 규모로 법당 기도실 종루

보살계 수계식 봉행 태고종, 전북 26일·제주 28일

태고종 전북총무원회는 오는 26일 전주신내체육관에서 대승보살계 수계식을 거행한다. 갈마사리 영산스님을 비

“佛音 연금술사 자부심으로 일해요”

불교 구성작가 37명 활동

- ‘피안을 향하여’ 이윤수씨
- ‘무명을 밝히고’ 김자경씨
- ‘한국의 명찰’ 김금희씨
- ‘그곳에 부처님...’ 배정화씨

‘최고의 방송은 우리 손에 달렸다.’ 불교텔레비전과 불교방송에서 일하는 구성작가들의 신념이다. 산뜻한 아이디어로 방송의 활기를 엮어내는 불교텔레비전과 불교방송의 구성작가는 현재 37명. 불교방송에는 개국때부터 방송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피안을 향하여’의 이윤수씨, ‘무명을 밝히고’의 김자경씨 등 2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텔레비전은 ‘한국의 명찰’의 김금희씨와 ‘그곳에 부처님 오셨네’의 배정화씨 등 17명이 불교전문작가시대의 형편 역할을 구축하고 있다.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자부심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한다는 신념으로 기량을 다지고 있는 작가들은 프로그램의 특성살리기와 시청자·청취자의 마음발달기가 자신의 손끝에 달렸다는 책임감도 크다.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생활속의 부처님 법을 도출해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 불교구성작가들은 방송의 특성상 문필력과 아울러 정확성, 시기성, 정보성, 창의성등과 독창적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작가들은 전문성을 넓혀가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있다.

불교방송 작가 이윤수씨는 “불교전문작가라는 자부심과 신심을 지니고 불교적 심성이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활동중인 구성작가들은 많지않은 고료로 경제적인 부담감을 갖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성작가의 90%가 프리랜서라는 특성은 있으나 방송을 통한 불발충포의 출발점은 작가에게 있는만큼 불교계 작가들의 모임체와 교류의 장을 마련, 타 방송사에 못지않은 경제적 조건으로 이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작가 스스로 방송의 전문성과 불교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방송국 차원에서 전문작가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 질 때 방송도 교의의 효과는 보다 높아질 것이라 관계자들의 얘기이다. <김일우 기자>



이와나미 불교사전 전자책 출시

불교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최근의 학문적 성과까지 정확한 해설을 담고 있는 1989년 초판 이후 높은 평가를 받아 왔던 이와나미(岩波)불교사전이 이번에는 전자책으로 나왔다. 이번 전자책판에서는 표제어 9만5천여어를 수록하는 것 이외에 독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동어 1천2백 항목, 소표제 1천항목을 부가시켰다.

등신불

지난 9년 입적한 중국 구화산 화성사의 지명스님 육신이 4년 후인 지난 3월말 개울식과 함께 공개됐다. 탈수가 되어 경화된 스님의 육신에는 옷칠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개굴분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우봉규씨(극작가)>

중회결의 관철키로 불교방송대행위

조계종 불교방송대행위는 지난 13일 오후3시 회의를 열고 20일부터 조계종스님의 불교방송 출연 및 협찬금지 등 취재금지, 불교방송 이사회 소집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회결의 사항을 양보없이 관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불교방송 이사회는 21일을 전후로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불교방송 대행위는 지난 11일, 12일 양일간 불교 부산·광주방송을 방문하여 부산·광주의 개국과 정에서의 문제를 진상조사했다.

불방사태 성명서 발표 언론대책위·보현도량

불교언론 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스님)는 지난 11일 ‘불교방송 정상화를 바라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교방송 사장의 용의와 불교방송 임직원과 불교신문 직원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밝혔다. 또 보현도량(회장 재홍스님)도 지난 11일 ‘불교방송사태와 조계종의 대응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불교방송의 조계종단화는 범종단, 범불교적 방송의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선사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교방송 이사회는 이번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교방송 경영진을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부쩍 늘어난 내방객

교계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현직 장관들과 정·재계의 유명인사들이 총무원을 방문하는 것은 구 총무원 시대와 비교해 보면 한층 불교의 위상이 격상된듯 보여지고 있다. 비록 이런 방문

btm 광주개국 설명회

불교텔레비전은 지난 12일 광주 신영파크호텔에서 3백여명의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국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이텔 btm방 개설 프로그램·각종행사 안내 불교텔레비전은 지난 18일 하이텔통신에 btm방을 개설했다. btm방에는 프로그램 안내, 시청자 참여, 게시판, 행사안내 등이 서비스된다. btm방은 하이텔을 이용하여 ‘Go btm’으로 들어가면 된다.

방송 하이라이프

btm ch32

적멸보궁 정암사

한국의 명찰(17일 11:00~12:00) 태백산 기슭의 월정사의 말사 정암사는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로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수마노담이 있다.

온가족 병양고 있는집 사연

자비의 천수천안(18일 11:00~12:00) 월남전에 참전했던 남전 김삼두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육마비증세로 세상을 떠나고 부인 조막순씨는 백내장과 독내장으로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 아들 김용석군 역시 아버지처럼 근육이 위축리는데 김군가족의 사연은...

김용림·남일우 부부 초대

김병조의 스티쇼(19일 11:00~12:00) 방송인인 김용림·남일우 부부를 초대한다. 억척스럽고 강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편안하고 소박한 김용림씨의 연기인품과 장난기어린 프로포즈를 부부의 애정과 불자로서 부처님 공덕에 감사하는 생활담을 들려준다.

현장스님, 부다가야 도착

실크로드(20일 21:00~21:50) 현장스님은 장안을 떠나 인도로 향해 장장 13년이 걸린 구마의 여정길에 오른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득도했다는 부다가야, 오아시스의 도시 모발라케에 다다른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공공진세 딸 진여성보살

피안을 향하여(17일 14:10~14:45) 공공진세의 외동딸인 공주 원효사 진여성보살, 어머니에게 불교적 정서를 전수받은 진여성 보살의 신화이야기를 듣는다.

범종·목어 유래 해설

무명을 밝히고(18일 17:10~18:00) ‘다시 보는 불교문화’ 코너에서는 문화재 전문위원인 유문용씨의 해설로 범종, 목어의 유래를 알아본다.

조선시대 스님 주제 퀴즈

퀴즈 대장경(20일 15:05~15:55) 조선시대 스님들을 주제로 퀴즈 대결이 열린다. 불교어업의 조선시대 한국불교의 맥을 이어오는 보우, 서산, 사명, 부휴, 권양, 초의선사를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

우리 시대 최고의 수맥방지 온돌침대

병이 있는 사람은 병세가 호전되거나 치유되고 허약한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태어난다

관음순

반세도록 30여년의 최우마 순공의 새로운 원목의선(81)의 공명공진현상으로 완성하시여드립니다.

이런 느낌은 어떠한 일과 글로부터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수맥방지 온돌침대의 효능에 만족하십니까?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통증의 경감 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병태하중·산후조리 교통사고 후유증 등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불면증·비만 미용 등에 효과 있습니다.

기억에서 난치병의 개선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침대를 수맥방지 온돌침대로 교체해 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서 및 샘플링을 보내드립니다.

전기용품 QR코드 획득

품질보증

본상품은 품질보증서 발급가능합니다. 영안구경에 사용되며 한국근대사립병원인증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건강 상담실 운영